

또장하듯 중견기업인 여러분,

한자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서입니다.

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남양면 영원과 강여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회원사 여러분이 고분입니다.

11월 7일 개최된 제 8회 중견기업인기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기념식을 찾으신 것 처음
입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뉴스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바탕석이 되어주고 있다고 칭하하시면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러움을 극복하는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불법화라고 잘못된 지체가 중견기업인들이 영정을 장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하셨습니다.

중견기업 4대 시책 펀드 조성의 R&D, 수출, 투자, 마케팅 등

때까지 시련을 강하라고, 무엇보다도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중견기업에게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임사는 물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거대한 성과를 일궈
온 중견기업인 모두의 성취입니다.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시간을 허락받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동생명력인 '허리'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통 제조업은 물론 ICT, 바이오, 바이오통합, 유통, 건설,
문화, 식품 등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중견기업은 선택되어서 자신있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견기업에게 제일선에는 현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라거의 열정과 모든 역량을 분당하게 기복하는 1세대 경영인들이
서있고, 이것이야말로 중견기업의 가장 큰 힘이라고 대우경제에서
당당하게 밝힙니다.

시간이 갈고, 정부가 미루, 위험적인 기능성기 공간에서 중견기업이 맨 앞줄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선기업의 역량, 후진기업의 정교함. 그리고 미래기업의 개척정신을 나란히 이어줌으로 두 향도를 더 많이 연구하고 혁신하겠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 명의 기대이런 시민 앞에 정부의 열정과 약속을 세기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는 또렷하고 사랑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겨낸 부분입니다. 같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앞서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견기업이 경제 여파에서 선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면, 정부와 함께 중견기업인들이 묵도리에 귀기울여 경영 애로들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감을 갖고 대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이 혁신 벤처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걸맞은 산업혁신을 이끄는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의 동력으로 진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채는 정연기업 여리분.

대통령께 드린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의 최고
정연기업들이 모인 기업식 현장이야말로 인간적도생양의 실체와
성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해 일년 후 더 큰 발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니 꼭 다시 찾아오시라며 약속은 도에 차임은
실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발전이 전체의 혁신과
진보를 이루실 것입니다. 정연기업이 어떤 존재인지, 세대를 잇는
정연기업인들의 기업을 정신이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언제나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평화의 사신과 평안을 위한 공동체로
적극하게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기업인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기업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 8회 정연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정연기업인 여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 날 발전 못한 분들은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삼이

만나 지혜를 청하겠다는 용해로 계엄하면서 그런 약속이요
됩니다. 조금 늦어졌다면, 모든 정권계엄인이 가벼이할 성과를 만들
어내려고 애쓰느라 시간을 내지 못한 까닭이었거나 하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해야 멀리 갈 수
있고 혼자서는 갈라야 아무 의미도 없으니,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한국정권계엄연맹회 회장

최진식 대표